

'95년 돼지해를 돌아본다

작금의 양돈 산업은 양돈인 모두들에게 제일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사료 곡물가격의 꾸준한 상승세로 배합사료의 가격이 연초대비 15% 이상 상승하고 수입소고기들의 소비 패턴변화로 인한 돈육소비의 위축, 3D 현상으로 인한 인원보충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이때일수록 양돈인 모두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가 되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지않을까 생각해본다.

1. 수출물량의 확대

일본의 자국양돈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긴급조치발동이 확실히 되고있어 대일 돈육수출 전면 중단은 물론 국내양돈산업의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긴급조치가 발동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일 돈육수출 가격이 현재 kg당 5백84엔에서 7백27엔으로 무려 23.8% 대폭 인상,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돈육수출 산업을 안심, 등심 위주의 냉동육에서 충분히 가격경쟁력이 있고 다양한 부위를 수출할 수 있는 냉장육으로의 전환이 장기적으로 국내의 양돈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2. 한 곳에서의 집결된 목소리

현재 국내의 양돈단체들이 제 각각의 목소리를 한 곳에 집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양돈인들이 한 곳의 단체에서 한 목소리로 각 개개인 양돈인들의 뜻을 집결하여 양돈 정책의 수립, 새로운 지식 기술 등의 보급, 대정부 질문이나 건의를 해



기 정 도
(본회 부회장)

야만 우리의 뜻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3. 정부의 지원

오래전 부터 열망해온 축산기자재 및 사료 부가세의 영세를 지원, 축산기자재의 영세율은 이미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다행이나마 사료부가세의 영세율 적용이 총 사육두수 200두 미만인 농장에 한해서 적용이 되고 있다.

현실에서 과연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시설의 자동화, 규모의 확대 등을 통한 생산성 절감을 외치고 정부 자금이 지원되는 이때에 과연 얼마만큼의 양돈 농가가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사료의 관세 등으로 생산 원가를 낮추는 데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발동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1차 산업인 축산의 사료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원가절감(약 8% 정도)에 획기적으로 기여를 하게 되고 국제경쟁력이 말로만 아닌 실제로 향상되어 진다는 것을 모두 깊이 생각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나날이 증대하는 환경보전 및 보호의 인식으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 나가는데 필요한 시설자금의 대폭적인 보조와 융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자조금 제도의 활성화

자조금 제도를 만들고 추진하고 있지만 생산자 스스로 가격이 나쁠 때는 수매 비축하고 가격이 상승될 때는 수매 비축분을 방출하여 가격을 조절하는 형태를 생산자 단체들이 해야 할 때인 것 같다. 가격이 상승할때 물가 안정이라는 준 과세로 인해 수입육이 무제한 방출되고 가격이 나쁘면 판매 자체까지도 힘들게 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